

성형수술 부작용 속출... 절반이 눈·코 '비대칭'

■ 소비자원 214건 접수 분석해보니

유방성형 보형물 이상 17건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도 31%

미용성형수술 부작용 피해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의료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성형수술 관련 피해가 최근 2년간 총 214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7건(68.7%)이 부작용 피해이고, 나머지 67건(31.3%)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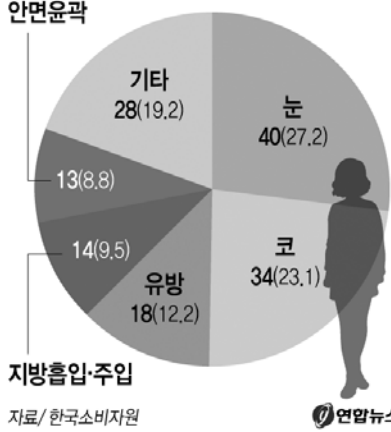
눈과 코 성형은 '비대칭'이 각각 21건(52.5%)과 13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성형술은 구형구축 등 '보형물 관련 이상'(17건, 94.4%)이 대부분이었다.

안면윤곽성형은 '비대칭'과 '신경손상'이 각각 5건(38.5%)으로 많았다. 성형수술 부작용 중에는 '비대칭'이 40건(27.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형물 관련 이상' 23건(15.6%), '홍터' 17건(11.6%), '염증·감염' 15건(10.2%) 등의 순이다.

부작용 피해의 절반 이상은 눈(40건, 27.2%)과 코(34건, 23.1%) 성형수술에서 나타났다. 이어 유방성형술 18건(12.2%), 지방주입·흡입 14건(9.5%), 안면윤곽성형 13건(8.8%) 등의 순이었다. 또한 부작용 피해 147건 중에는 부작용이나 효과 미흡 등으로 이미 재수술을 받았거나 재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130건(88.4%)에 달했다.

성형수술 부작용 부위별 발생 현황

2013~2014년 접수 기준 단위: 발생건수, (%)



자료/한국소비자원

특히 눈과 코 성형수술의 경우 부작용 피해 사례 모두 재수술을 받았거나 재수술이 필요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20~30대(130명, 60.8%), 여성(173명, 80.8%), 수도권(152명, 71.0%) 거주자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위치한 병·의원(152건, 71.0%)에서 피해가 가장 많았고 특히 강남 소재 병·의원에서 발생한 피해가 서울지역 피해의 80.9%(123건)를 차지했다.

성형수술 관련 피해 중 병·의원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146건(68.2%)이었고, 이 중 배상·환급 등이 이뤄진 경우는 122건(83.6%)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성형수술을 받고자 할 경우 성형



미용성형수술 부작용 피해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의료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외과 전문의 여부 및 수술 경력, 주요 분야 등을 확인한 후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며 "의료진에게 자신의 병력 등을 고지한 후 충분한 검사 및 상담을 받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 수술의 한계,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수술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작용 발생 시에는 즉시 수술병원에 알리고, 재수술 여부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저가항공사 항공권 환불 지연·거부 사례 급증

작년 피해접수 146건

전년 동기비 240% ↑

저가항공사가 항공권 환불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는 지난해 접수된 저가항공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14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43건에 비해 240% 늘어났다고 5일 밝혔다.

피해건을 종류별로 보면 항공권 환불·지연이 64.4%인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불만족 33건, 수하물 파손 등 문제 13건 등의 순이다.

항공권 환불·지연피해의 경우에는

2013년 28건에서 지난해 235.7% 늘어났다.

이처럼 저가항공사 환불·지연 피해가 폭증한 것은 지난해 외국계를 위주로 국내에 취향한 많은 저가항공사들이 고객의 환불요구가 있으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사실상 환불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상당히 싼 가격의 저가항공사 항공권 '특가 상품'의 경우 출발일이 얼마나 남았는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전액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집중됐다"며 "소셜커머스 등 항공권 판매 경로가 많아지면서 '최저가' 상품 낚시에 현혹되는 소비자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보해, 설 선물세트 복분자·매취순 등 9종 출시



복분자 더드립 세트



매취순 선물세트

보해양조(대표이사 유철근)가 설 명절을 맞아 '보해 설 선물세트 9종'을 출시했다. 국산 복분자의 맛과 풍부한 향이 일품인 '보해 복분자주' 선물세트와 해남 매실농원 '보해 매원'의 최상급 매실로 만든 매실주 3종 등 주고 받는 이 모두의 품격을 높일 선물세트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보해 복분자 더드립 세트는 보해 복분자주와 전용잔으로 구성됐다. 보해 복분자주는 이미 국제행사에서 여러 차례 공식 만찬주로 선정돼 국내 전통주의 품격을 높였다. 세트 가격은 3만4000원.

▲매취순 선물세트 3종은 청정지역 해남에서 보해가 직접 재배·수확한 최상의 청매실로 담은 프리미엄 매실주로 매취순 12년을 비롯해 매취순OLD, 매취순 오리 지널 3종으로 구성된 소비자들 선택의 폭을 넓혔다. ▲보해 플럼와인 메이(MAY) 선물세트는 국산 매실 원액에 화이트 와인을 더해 상큼하면서도 알코올 도수가 10도로 낮아 2030 여성들이 선호하는 제품이며 1세트 가격은 8000원.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3초만에 단박콜... 대부업체 '과장광고' 사라진다

'3초만에 단박콜', '선착순 3만명 최대 3000만원까지 30일 무이자해택', '누구나 무상담 대출' 등 TV에서 난무하는 대부업체의 과장 광고문구가 올해 하반기부터 사라진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밝힌 새해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러한 불건전 대부광고가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반기중 대부업법 시행령, 대부금융광고 심의규정 등을 바꿔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대부업광고에 대부금리, 추가비용, 등록번호, 과도한 채무에 대한 경고문구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분명하게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중요사항의 글자 크기, 색상, 방송 광고시 노출시간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런 중요 사항을 흐린 색의 작은 글자로 화면 하단에 표기해 현재 규제를 우회적으로 피하는 광고가 많았다.

또 '3초만에 단박콜'처럼 사실상 불가능한 속도로 대출 절차가 이뤄지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허위 또는 과장일 가능성이 큰 만큼, 허위·과장광고의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빠른 대출속도, 서류면제 등 대출의 용이성을 과도하게 강조해 소비자의 대출 의지를 자극하는 표현도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최후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대부업협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허위·과장광고의 기준을 꼼꼼히 만들

금융위, 관련법 개정 하반기 시행

대부금리·추가비용 등

주요사항 경고문구

분명하게 표시해야

방침"이라며 "허위·과장광고로 판정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문지도 따지지 않고 누구나 가입' 등 보험사의 과장성 상품 광고에 대해서도 3회 이상 반복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규정을 손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일부 가맹점에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편의점,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적용하는 가맹점은 전체의 1% 정도이고, 같은 가맹점이라도 카드사에 따라 무서명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윤영은 금융위 중소기업과장은 "무서명 거래가 확대되면 판매대에서 결제시간이 짧아져 긴 줄을 설 필요가 없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매출전표 수거비용이 줄어 가

맹점 수수료를 인하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에 연결된 휴대전화 요금 자동납부 등의 정보를 카드 해지시 카드사가 고객에게 안내하는 방안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된다. 지금은 카드를 교체할 때 충전 카드에 자동납부 등이 걸려 있으면 소비자들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새로운 카드로 자동납부 신청을 해야 했다.

또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를 대출 계약기간에 일정 횟수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일부 은행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 소비자 권익을 높이고, 보험 소비자들을 위해 복잡한 보험안내 자료를 쉽게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지원제도도 개선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법'이 통과하는 대로 미소금융재단, 산회복지위원회, 행복기금 등 업무조직을 통합해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와 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을 도입하고, 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가 제도금융권에 안착하기 전에 이용하는 중간단계로 '징검다리 제도'를 만든다. 이밖에 사적재무조정 제도탈락자 지원강화, 고용복지센터내 서민금융 상담센터 추가 개소, 금융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 12개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울 대리석시공, 신축

월수익 500만
매가 6억6천
(보4천, 용자1억2천)

1. 전대정문 1분코너 룸21개 월 7억5천
2. 용봉지구코너 룸 21개 (1층상가, 4층주택) 매 11억 (토지 105평, 건180평)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염주동 상가건물매매(3층건물)
삼거리코너(1,2층 상가, 3층 주택)
월수익 400만(주인 거주가능)
매가 7억(보 1억, 용 3억)

1. 북구 구호전사거리 중심상가 7층
대지 100평/건물 580평
월수익 1,00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1,800만 수익 발생
매가 13억(보 2억, 용 6억)

2. 나주 2층 학원 상가건물
1층 6칸, 2층 4칸 영강초교앞
월 수익 200만, 매가 2억8천

3.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5층
보 2억, 월수익 1,000만
매가 20억

4.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대지 310평/건물 2채
매가 2억8천

5. 수완지구 1층 18평
대방 5차APT후문면(임대가능)
매가 3억5천

6. 수완지구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가 3억5천

7. 수완지구 4층중 3층(62평)
롯데마트 대로면(보 2천, 월 150)
매가 2억5천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나주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영산중고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환인 -> 2억8천

목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환인 -> 2억8천

010-6832-9700

상무지구 (상업지역) 사무실임대 (학원 시설안비) (사무실 가능) 중심대로변 주차시설안비

보 3천, 월 130만

상업중심지역

①1층, 2층 3층, 4층, 4층
②월수익 1,020만
③전사가 다입주 되어있음

010-6670-9800

경매교육 (개강) 제1기

한국경매학원(상무) (상무지구 오피스)

① 기본 경매 강의
② 바로 실전 실시

평생실전스터디반 (입찰부터~매매임대 리모델링)

010-6670-9800

경매교육 (운암동) 대한경매학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매월 (금, 토) 개강

☎오전10시~오후 7시
☎오전10시~오후 2시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실전반

062-513-4900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① 목포시 상락동(토221㎡, 건548㎡) 감정가3억7천, 최저1억7천
② 장성 삼계(토1068㎡, 건631㎡) 감정가2억5천, 최저9천1백
③ 순천시 행동(토373㎡, 건1304㎡) 감정가172억, 최저120억
④ 구례군 산동면(토1329㎡, 건958㎡) 감정가5억2천, 최저2억3천
⑤ 동구 계림동(토445㎡, 1558㎡) 감정가10억, 최저7억5천
⑥ 북구 운암동 (토273㎡, 건물247㎡) 감정가2억, 최저가1억7천3백
⑦ 북구 중흥동 (토133㎡, 건물253㎡) 감정가1억7천, 최저가1억1천
⑧ 남구 서동(토306㎡, 건물90.18㎡) 감정가1억6천, 최저가 1억1천

오피스텔

①서구 치평동(대5.23, 건물331.12) 감정가6천7백, 최저가3천7백
②서구 화정동(대14.144, 건물44.35) 감정가5천, 최저가5천

공장

①광산구 월전동(토지4162㎡, 건물3281㎡) 감정가30억, 최저가16억
②북구 월출동(건1746㎡) 감정가25억, 최저가11억
③광산구 지죽동(토2073㎡, 건물1187㎡) 감정가16억, 최저가9억

경매 같이 하실 분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382-5500